

## 치과의사, 당신의 치아는 건강합니까? Fones, Bass 그리고 지금

박 창 진 / 미소를 만드는 치과

현대 치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Pierre Fauchard는 1679년 출생, 1761년 사망한 프랑스의 내과의사이다. Le Chirurgien Dentiste (The Surgeon Dentist)라는 최초의 치의학전문서적을 집필하였으며 그 것이 1728년이다. 그는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젖은 스폰지로 치아를 문지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시작되어 온 칫솔질은 현재에 있어서도 치아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구강 내 세균조절을 통한 질병의 예방법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치주질환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단순히 앞뒤로 문지르는 Horizontal scrubbing method로부터 1906년 진료보조원을 교육시켜 치과위생사를 만들어낸 Fones의 1900년대 초반의 칫솔질 방법이 현재까지 교육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이다. 교과서에 수록되고 전공 대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Stillman, Charter's, Rolling, Bass method 등의 방법 들 역시 모두 1950년대 이전의 방법들이다. 이들은 모두 상당히 오래 전에 단기간, 소집단을 대상으로 검증되었을 뿐 타당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는 없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고전적인 칫솔질 방법의 대부분은 치아의 순협면과 설면의 치아를 세정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오로지 Bass법만이 치은 열구를 세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인접면의 세정에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Bass법이 치은 열구에 집중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주로 협설면의 치은열구 일부분에만 집중할 뿐이기에 대개 1mm정도의 깊이까지만 그 효과가 있을 뿐이며, 인접면의 세정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해온 치의학과 치과기술은 수복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손상된 구강조직을 복구하는 술식에 그 투자와 발전이 집중되었으며, 자연치아의 보전과 건강한 구강조직의 유지의 기본인 개인구강위생관리 분야에서의 발전은 미미하기 그지 없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리되어 2014년 확립된 SOOD Technique은 그러한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최신의 구강위생관리 방법인 SOOD Technique의 의의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SOOD Technique은 Biofilm의 구조와 병원성 물질의 생성과정에 집중하며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부위의 세정에 최상의 효과를 얻고자 고안되었다. 또한 동기부여를 통한 환자의 행동변화를 위해 정확하고 간결하게 과정을 요약하고 정리해 지시한다. 적절한 도구의 선택기준과 도구를 파지하는 방법 그리고 칫솔의 행정와 그 행정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SOOD, 단 네 음절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S: Soft Bristle, Soft Movement with Pen grasp

O: Open your mouth, Look at the target tooth

O: One by One, Do not rub, small circular movement

D: Deeper to the gums, Focus on the Sulcus

학력 및 경력

- \* 경희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과교정학 전공 치의학박사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교정과 전공의수료
- \*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 \*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 이사
- \* 예방치과진료프로토콜 APEM, SOOD Founder
- \* 미소를 만드는 치과의원 원장